

2024년 04월 24일 17주간

제24-17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15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말씀

에베소서 1장 3-7절(신약p.310)

암송구절

에베소서 1장 5절(신약p.310)

찬 송

찬송가 60(통67)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304(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본 문 이 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찬송하고, 이 은혜 안에 들어와 함께 나누며 살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믿고, 그 전적인 은혜를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바울은 무엇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이란 표현은 성도(교회)의 궁극적 위치를 영적 관점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운 위치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령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복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에베소서 1장 4-6절

-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입니다.

보충설명

본문 4-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바울서신의 핵심어구를 통해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택하사…예정하사”라는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그 구원을 실행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증거해 줍니다.

3.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장 4-6절

-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자기 삶의 자리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교만, 세상 배경, 자기 경험, 최고 학문의 자리가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거룩함의 자리가 하늘에 속한 자기의 위치임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묵상 이야기

강물에 사는 물고기들끼리 이런 질문이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에 좌우된다고 하던데 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서로 질문만 하고 답을 찾지 못하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큰 바다의 학자 물고기를 찾아가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조용히 들은 학자 물고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찌 여러분에게 물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물 안에서 생겨났고 물 안에서 살다가 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몰랐단 말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 전부가 물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눔

– 내가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기도

– 하늘에 속한 복으로 만족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적용

–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있을지 생각
봅시다(내면, 외면).